

사진기사의 땀짓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행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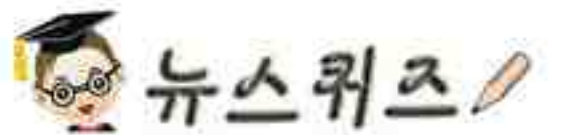


수십명의 사람들이 컴컴한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지난 2일 차량 화재가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호남터널 사고 현장입니다. '굉' 소리와 함께 유독 가스로 가득 찬 터널을 빠져 나와 서성거린 지 2시간만인데, 주저주저합니다. 터널 안은 불이 꺼져 깜깜합니다. 선두에 선 경찰을 놓치기라도 하면 큰 일 날 듯 자녀들을 재촉합니다. 사고직후 도망치듯 빠져나오면서 두근두근 차라리를 가지러 간다고 하더군요.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들어가는 시민들의 얼굴에 그때의 두려움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터널(740m)안 차량이 보이지도 않는데, 라이터 불을 켜고 더듬 더듬 들어갑니다. 선두에 선 경찰도, 뒤따르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깜깜해, 무서워"라며 칭얼 댑니다. "손전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 도로공사 직원들, 경찰관들에게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나명주기자 mjna

뉴스퀴즈 65·66회 정성동씨 1등



광주일보가 실시한 65·66회 뉴스퀴즈 당첨 결과, 정성동씨가 1등에 뽑혔습니다. 정씨는 21일 광주일보 편집국에서 열린 상품 추첨식에서 진공 청소기의 주인으로 당첨됐습니다. 65·66회 뉴스퀴즈에는 열서와 편지로 306명이 응모했으며,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답자 2명을 뽑아 순서에 따라 등수를 정했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홍보 사원 박선영씨가 추첨을 했으며, 공정한 추첨을 위해 광주동부경찰서 백급열 경장이 입회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등 ▲정성동·고흥군 봉래면 2등 ▲선봉서·해남군 해남읍



67. 지난달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여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 한국 여배우가 세계 3대 영화제(칸·베를린·베니스)에서 여우주연상을 탄 것은 지난 1987년 '씨받이'로 강수연이 베니스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후 20년만입니다. 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동양계 여배우로는 홍콩 장만위(2004년) 이후 두번째입니다. 이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① 전도연 ② 이영애 ③ 전지현 ④ 송혜교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인터넷 시대, 장례식장에서 생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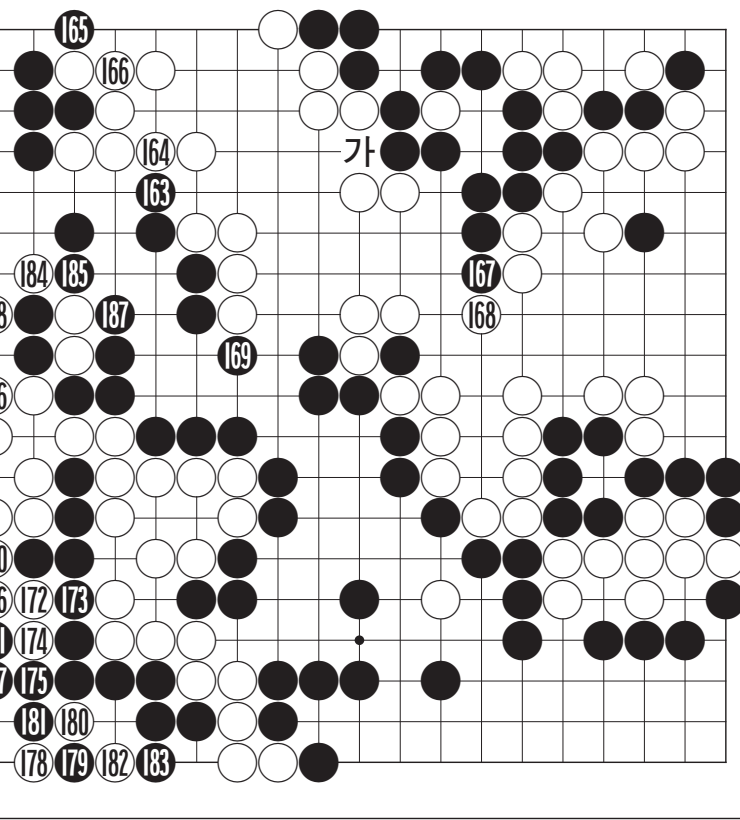
인터넷 시대에 반드시 따라 다니는 새로운 문화 바로 네티네임입니다. 이제는 이름 만큼 중요한 식별도구로 쓰입니다. 누군가 호칭을 할때도 네티네임을 부르는 일이 더 많아 진것 같습니다. 자주 가는 커뮤니티와 동호회도 마찬가지지요. 얼마 전, 자주 가는 동호회의 회원 한 분이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엔 자주 안 나가지만 조문이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먼식 있는 회원에게 연락하고 장례식장에서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안실을 찾다가 상당히 난처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산책대기님 원래 이름이 뭐야?" ".....?" 그렇습니다. 달랑 네티네임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영안실은 실명으로 표시되어 있어 초상집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긴적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야 이름을 알게 되었고 빈소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났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조금은 따로 견어서 봉투에 담았는데, 안내를 맡은 청년이 방명록에 이름을 적어 달라고 부탁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5명이 와서 머뭇거리다 그냥 가면 더 이상하게 생각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 이름을 적으려다 보니 광범하게 '이순신', '홍길동', '변학도'등으로 쓰면, 상주인 회원이 나중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부르던 호칭으로 적어야 누가 다녀갔는지 알겠지요. 그래서, 자신있게 네티네임으로 썼습니다. '감자양' 뒤에 있는 회원도 내 의도를 파악했는지 고개를 끄덕이곤 자신의 네티네임을 썼습니다. '아무개'. 이 회원의 네티네임은 아무개입니다. 데스크에서 안내를 하던 젊은 청년이 난감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다른회원도 네티네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회원의 네티네임은 '거북이 왕자'였습니다. 안내를 하던 청년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민망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방명록에 이름을 적는 우리도 민망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적지 못한, 뒤에 있는 회원분을 다그쳐, 빨리 쓰라 했더니 이 회원은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원의 네티네임은 '에헤라디아' 였습니다. 빨리 쓰라고 다그쳤지만 차마 펜을 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아! 빨리 쓰고 갑시다. 쪽 팔려 죽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에헤라디아'라고 쓰겠습니까? 그래도 얼른 가지니까! 결국 '에헤라디아' 회원님은 다른 회원들보다 작은 글씨로 조그맣게 '에헤라디아' 라고 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남은 회원이 자리를 박차고 영안실을 뛰쳐 나가는 것이니겠습니까? 얼른 자리를 벗어 나야겠다는 생각이 모두 큰 소리로 "저승사자님, 어디가세요"하고 그를 불렀습니다. 아, 이런 실수를~ 주변이 썰렁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개를 숙이며 장례식장을 빠져 나와야 했습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5일(음 4월 20일 庚午)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for the day of June 5th. Each row includes a brief description of the day's luck and the number of '행운의 숫자' (lucky numbers).



제16회 강일백 광주 전남 직장바둑대회 후수 석집의 손해 8보(163~188) 백 이한재 4단 (조선대) 흑 이민재 4단 (광주시청 A) 앞 보에서 흑이 결정적 찬스를 살리지 못한 가운데 바둑은 종착역을 향해 속도를 저당고 있다. 마지막 변수였던 '가'의 곳을 찌르는 수를 놓치고 난 현재의 형세를 살펴보면 흑이 도저히 답을 내기가 힘든 국면으로 보인다. 이한재 4단은 백 170으로 속 밀고 들어왔을 때 이민재 4단은 무심코 171로 뛰어들어주고 말았는데 이 수가 또 미세한 바둑이었다면 두고두고 회한이 남을 손해수였다. 이 수로는 172의 곳에 늘어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곳이다. 안전하게 둔다고 171로 물러선 것이 오히려 손해를 키웠다. 이한재 4단이 틈을 놓치지 않고 172로 찌러간 것이 적시타가 되었다. 그런 다음 174로 찌러 흑이 애초에 172로 받은 것과 비교하면 석집의 차이가 나고 있다. 후수로 석집을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이민재 4단은 맛있게 176까지를 선수한 다음 드디어 184로 반상최대의 곳을 찌며 188까지 승부를 결정짓는다. 이곳은 흑이 지키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여섯집이나 되는 큰 곳이다. 이것으로 모든 변수가 사라지고 백의 승리가 확정되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흥성지, 물가정보배 8강 결선 진출 흥성지 5단과 원성진 7단이 3전 전승으로 물가정보배 결선에 진출했다. 흥 5단은 4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B조 본선리그에서 진동규 3단을 176수 만에 백 불계로 꺾고 조 1위(3전 전승)로 8강 결선에 진출했다. D조 대국에서는 원성진 7단이 176수 만에 백 불계로 최원용 5단을 꺾고 3전 전승으로 8강 결선에 합류했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로 진행되는 속기대전이며 우승상금은 2천500만원(준우승 1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man and child. Text includes 'www.cafe.daum.net/sajoo114' and '☎11-632-6121'.

A large table with four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Each column contains a topic (e.g., 'I want to open an account', '週末はどこかへ出(でか)けたんですか'), a sample dialogue in English and the target langua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rovider (e.g.,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